



화가 김병중 서울대 교수가 22일 제회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서 첫 개인전 김병중 서울대 교수

# “한국 예술 정체성은 호남... 자긍심 가져야”

“페루·네팔·칠레 등 여행 느낌 남도산수로 표현”

제회갤러리서 ‘생명의 노래’ 연작 등 31점 전시

화가 김병중(60) 서울대 미대 교수를 만났다. 올해 환갑을 맞은 그는 지난 2004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광주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22일부터 제회갤러리(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열리고 있는 ‘생명의 노래’전이 제대로 된 첫번째 개인전과 닮았다.

전시 개막에 앞서 만난 김 교수는 기존의 양옥 집을 리모델링한 전시공간 자체를 마음에 들어 했다. 시간의 흔적이 묻은 공간과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내는 ‘묘한 앙상블’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혀 색다른 분위기를 표명했다.

“여기에서 전시를 열게 된 것도 건물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실제 작품을 걸고 보니 남미 등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직적인 공간에 하얀색 바탕 등 천원일률적으로 꾸미는 다른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 때문이죠.”

이번 전시에는 1989년 연탄가스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부터 선보이고 있는 ‘생명의 노래’ 연작을 비롯해 페루, 네팔, 북아프리카 등을 여행하고 돌아와 선보이고 있는 근작 등 모두 31점이 걸렸다.

작품들은 하나같이 화려하다. 활짝 피어난 빨간 꽃망울과 푸른 새싹이 화사한 봄 이미지로 갤러리를 장식했다. 근작들에서는 남미, 북아프리카 지역 특유의 뱀새가 물씬 배어나왔다. 황토빛 갈 배경에 수 놓인 풍경은 한 폭의 화려한 남도산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침략 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문화가 섞인 나라를 돌면서 우리 나라 60~70년대 환경이 떠올랐어요. 거기에서 남도산수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엄한 전통산수와는 달리 작

품들은 삶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에는 삶의 이야기가 숨어있었다. 전체적인 남도 느낌의 배경에 그 나라의 이미지를 녹인 것이다. 그가 여행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일제시대를 산 우리나라의 이야기기도 하다.

김 교수는 올해 화갑이자 서울대 미대 재직 30년을 맞았다. 작품에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다니 “변화보다는 점점 유치해지고 있다”며 웃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보면 화려한 느낌이 들고, 그럴수록 더 아름다운 색으로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침의 아이러는 의미를 지닌 그의 호 ‘단아’(坦雅)다운 대답이었다.

광주서 처음 여는 개인전이지만 그는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이 깊다. 1995년 서울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창립행사에서 이용우 대표이사의 초청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임태되는 것을 지켜봤다.

대학교 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각각 미술평론과 희곡이 당선되고, 민전과 관전 등에서 특선을 해 당시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였

던 이용우 대표이사가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런 그를 주위에서는 “그림처럼 글을 그리고, 글처럼 그림을 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화첩기행 시리즈’와 ‘오늘밤 나는 당신 안에 머물다’는 그의 향기가 잘 드러나는 책이다.

“한국 문화에 심취했던 일본인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가 쓴 ‘전라도 기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조선 문화의 정체성, 전라도에 있다. 그의 말처럼 한국 예술의 정체성은 호남이고, 광주비엔날레로 세계의 현대미술을 선점한 광주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광주는 호남의 예술적 아우라, 기질, 자긍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광주 스스로 내부적 재창조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가 가진 창의력, 응집력과 광주비엔날레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화적 저력을 키우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광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은 인상적이다”며 “베를린처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9일까지다. 문의 062-222-93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봄의 서정 2’

## 님을 위한 행진곡, 희망을 말하다

김원중의 달거리 5월 행사 오늘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5월 행사가 27일 오후 7시30분 관객들을 찾아간다.

매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던 콘서트가 이번 한차례만 이웃한 빛고을아트스페이스(옛 수궁갈비 자리)로 옮겨 진행된다.

5월 행사의 주제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5월 광주의 정신과 함께하는 노래, 그림, 사진, 영상으로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

곡’의 작곡가 김종률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 당시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또 강윤숙 재즈 트리오(강윤숙·김성광·임민수), 느티나무 밴드,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의 노래배달 등이 이어지며 주홍의 샌드 애니메이션과 진시영의 미디어 아트도 만날 수 있다.

무대 미술을 맡은 이는 최근 무등산, 광주전 등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화가 김영태씨다. 김



씨는 광주 시립미술관 북극창작센터 입주작가며 신세계미술사 대상(2001)을 수상했다. 입장료는 없고, 공연 관람 전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스럽게 기부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월 주역이 전하는 ‘오월 이야기’

이지현 부상자회 전화장 모노드라마 ‘애꾸눈 광대’

내일부터 10월까지 화·수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을 지낸 종합예술인 이지현씨가 5월 상처의 치유와 희망을 온몸으로 풀어내는 1인극으로 광주시민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8일까지 매주 둘째, 넷째 화요일 상설공연 ‘애꾸눈 광대’를 선보인다.

## 슈베르트 가곡의 밤

송미나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소프라노 송미나 독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슈베르트 가곡의 밤’으로 꾸미는 이번 연주회에서 송씨는 ‘아베 마리아’, ‘당신은 씁니다’, ‘실비아에게’, ‘사랑의 노래’, ‘비탄의 노래’ 등을 들

려준다.

송씨는 이미 3차례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독주회를 연 바 있다.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출신으로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송씨는 모나무르 실내악단, 목포시향 등과 협업했으며 현재 호남신학대 콘

위해 주인공이 광대가 되어 전국을 헤매게 된다는 내용이다.

창작관소리, 마술, 성대모사, 영상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주인공을 맡은 이지현씨의 열정과 힘이 작품 내내 지속된다.

연출을 맡은 신동호 전 극단 토박이 대표는 “‘애꾸눈 광대’를 통해 5월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이 공연이 5월 광주공동체의 위대한 정신이 널리 퍼지는 데 작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749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서바토리에 출강하고 있다. 중앙레이디스 앙상블 지휘감독으로도 활동중이다. 이날 공연의 피아노 반주는 박명숙씨가 맡았다. 문의 010-3629-66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www.kjhr.com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Duniopillo**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틱소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